

트윗 내용분석 및 이름 언급 연결망 분석

An Analysis of Politician's Twitter Message and Name Referring Network

윤호영·박한우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 연구소

Key words: Twitter, Politician Network, Twitter Message

1. 서론

그동안 인터넷과 정치간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연결망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 SNS) 중 트위터의 광범위한 대중화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정치적 집단 행동을 이끄는 등 제도 정치 영역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인의 트위터 활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민들과의 연결성 정치에만 한정되어 연구되어 왔다. 다시 말해, 기초적인 정치인들의 팔로잉-팔로워 수 정보 또는 트위터 메시지인 트윗의 수를 통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의 정치적 소통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본 논문은 이와 달리 정치인들이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소통도구를 통해 어떻게 개인화된 집단성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인터넷 공간의 정치인에 대한 연구는 일반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닌, 주로 선거 국면과 같은 동원의 측면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인터넷 정치에 대한 시민들에 관한 연구는 일상적 국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한계를 짚어왔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공통된 공론장의 부재나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정치적 행위자들에 비해 실제 제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왔다(Bimber 2000; Sunstein 2007).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제도 정치의 관점에서만 인터넷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역시 제도 정치의 틀속에서만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정치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인터넷 활용 패턴을 통해 그 영향력이 미약함을 지적하면서,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선거와 같은 특수한 국면의 활동을 적용하는 연구상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왔으며, 이는 곧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정치 활동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트위터 활용을 살펴보고 이들의 일상적인 인터넷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유는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정치인들간 협력의 정치를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야 실제로 앞서 언급한 비대칭성을 극복하면서 인터넷 정치에 대한 근간의 이론적 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치인들의 일상적 정치를 검토하는 의미를 지닌다.

3.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정치인은 연구 시기의 18 대 국회의원 및 12 명의 유력 정치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렇게 정의된 정치인은 2010 년 11 월 기준으로 총 309 명이었는데, 이 중 트위터 계정을 가진 정치인은 192 명이였다. 그러나, 계정을 '보호 모드(protected)'로 설정한 경우,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으므로, 수집된 자료의 정치인 수는 189 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0 년 11 월 마지막 주에 트위터 API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방법으로는 메시지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연결망 분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의 트위터상 이름 언급 연결망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 결과

4.1. 내용 분석

표 1 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개인의 트위터 팔로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전체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과의 연결성의 정치에 있어서 매우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치인들이 자유-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치인들보다 4.7% 정도 더 많이 개인 팔로워와의 소통이 많았는데,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 일상에 대한 트위터 메시지에서 나타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일상적인 내용을 자유-진보적인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유-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 분야에서 보수적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정책 및 국가 기관 관련 발언은 보수적인 정치인들보다 4.5%가 많았으며, 그 외의 정치적 발언 및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보수적인 정치인들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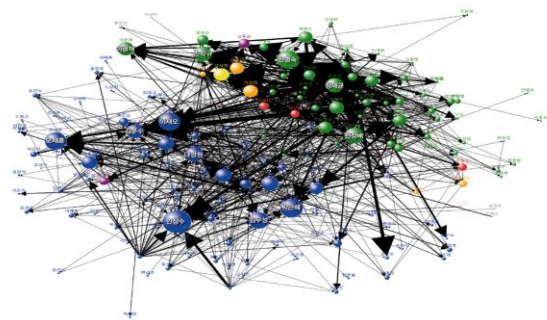
표1 정치인들의 트위터 메시지 내용분석 결과

		보수		자유-진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정치적 발언	국가정책/기관관련	151	4.30%	323	8.80%
	그외 정치적 발언	332	9.50%	449	12.20%
사람 언급	공직자 및 정치인	108	3.10%	207	5.60%
	유명인	32	0.90%	44	1.20%
	지인, 일반인	115	3.30%	122	3.30%
	기관 또는 조직	87	2.50%	120	3.30%
소통	개인 팔로워	1501	43.00%	1419	38.70%
	트위터 일반대중	129	3.70%	111	3.00%
개인 활동	자기 홍보	239	6.80%	290	7.90%
	일상 기록	580	16.60%	458	12.50%
	상품 제품, 기업	217	6.20%	124	3.40%
합계		3491	100%	3667	100.00%

4.2. 이름연결망 분석

두 번째로 다른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결성의 정치의 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름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정치인의 트위터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정치인의 비중이 트위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이름 언급 연결망을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하여 같은 당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등을 살펴보니, 야당이 여당에 비해 서로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정치인들의 이름 언급 연결망 그림(189명)



5. 결론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비해 자유-진보적인 정치인들이 트위터 서비스를 일상속에서 적극활용하여, 정치적 담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현실 정치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정치인들의 이름 언급 연결망 분석을 통해 근간 정치인에 대한 트위터 연구가 기초적인 트위터 정보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현실 정치와의 연관성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Bimber, B. (2000). "The stud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ivic engag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7(4), pp. 329-333.
- Sunstein, C.R.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